



우리꽃 재단

야생화 · 지피식물의 재배용기 및 규격, 더 이상의 대안은 없는가?

야생화 혹은 지피식물을 재배할 때 사용하는 용기를 우리는 포트라 하며, 그 포트를 보통 3치와 4치로 구분, 사용하고 있다. 이같은 포트 혹은 용기를 사용하는 것은 식물들을 재배할 때 아주 심기 전 단계에서 식물의 옮겨심기에 앞맞도록 규격화하고, 아주심기 후 뿌리내림이 좋게 하기 위함이다. 또 조경설계시 일정한 효과를 연출하는데 필요한 군집의 크기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용기의 규격이 식물소재의 특성을 반영한 규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많다. 더욱이 합리적인 설계와 비용절감 혹은 효과들 감안 할 때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1. 용기의 규격이 식물의 규격도 결정하나?

우리는 흔히 설계에 적용되는 야생화 및 지피식물의 규격에는 '3치포트', '4치포트' 혹은 '2~3분얼' 이라는 규격 즉, 3치, 4치, 분얼, 축 등이 있다. 이는 사실 식물의 규격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 여겨지나, 4치의 경우는 포트(용기)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식물의 크기와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문제점이었다. 예를 들면 3치포트라는 규격과 4치라는 규격은 그 안에 담긴 식물의 크기도 같은 단계로 크기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3치포트에 들어 있는 식물이 4치에 들어 있는 식물보다 훨씬 크기도 더 클 수 있다.

실제 '4치포트'로 설계된 현장에서 반입된 생육상태가 더 좋은 3치포트 식물은 용기규격의 미달로 반입 거부되고, 4치포트에 심겨진 식물은 4치라는 용기규격이 맞다고 생육상태가 불량해도 허용이 되는 실정이다. 이러다보니 많은 농가에서는 3치포트로 재배된 식물들을 반입하는 당일 혹은 며칠 전에 4치포트로 옮겨 담아 납품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기도 한다. 이는 당연히 생산비율 상승시키고 식물의 생육에도 적잖은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아닐 수 없다.

Contents

우리꽃 신종품-매일종류	2면	우수 품종 시리즈	6면, 7면
유용종목 재배관리-매일종류	3면	현장 리포트	10면
특전	4면, 9면	업체 탐방	11면
우리꽃 우수 조자	5면, 8면	현장추적	12면

때문에 식물의 크기 및 생육상태와 연관성이 약한 3치, 4치 혹은 분얼 등의 규격을 개선, 보완하는 일을 더 이상 미뤄서는 곤란하다. 이제부터라도 실제적인 규격을 재검토했, 이를 소비자와 생산자 그리고 학계 등의 공론화를 거쳐 우리 실정에 맞게 개선하는 일이 절실하다 하겠다.

2. 조경 현장의 성격에 맞게 '규격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조경에서 지피식물이 식재되는 것은 공사의 가장 마무리의 공정이다. 사람으로 생각하면 '얼굴화장'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사의 마무리 공정에서는 그 도구인 식물의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행사를 위한 조경공간의 경우는 완성된 조경현장의 모습이 완벽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3, 4치의 규격보다는 포기가 큰 6~8치 정도에 꽃이 핀 것이 좋겠고 3~4개월 후에 완결되는 도로 개설 등에는 오히려 트레이 200구 정도의 규격화된 묘목이 더욱 좋을 수 있다.



식물특성에 맞는 적절한 규모와 용기를 선택하는 것은 재배의 유통, 그리고 소비자층 향까지 모두 유리하다.



역동장의 종묘(지피재) 식재용 배분 효과를 볼 수 있다

1)대단원 혹은 최소 2~3개월 후의 완성된 모습을 원할 경우에는 트레이로 육묘한 식물들을 이용하라.

트레이는 육묘용 용기로서 작은 셀(Cell)이 연속적으로 구성된 육묘전용 자재라 할 수 있다. 주로 채소나 어린 묘목의 규격 묘를 대량 생산하기 위한 용기라 할 수 있다. 주로 셀의 개수에 따라 82구, 128구, 162구 200구 288구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편의의 크기는 동일하고 구가 적을수록 식물의 규격은 커지고 그 반대는 작아진다. 예를 들면 82구는 구방이 크고 288구는 구방이 작아진다.

필자의 생각으로 일반적용인 야생화, 지피식물의 규격도 재배용 기로는 200구 트레이가 가장 적당한 것 같다. 트레이 1판에 200구의 식물 개수 즉, 3치포트 200분과 같은 수량이다. 현재 이런 경우는 대부분 계약재배에 의해 공급이 되고 있으며, 가격은 3치 혹은 4치포트의 30~60%수준이다.

특히 트레이규격도(플러그)가 매우 균일하고 뿌리침략이 좋



① 규격화되어 재배된 각종 묘목, 묘가 일정한 공간에 배치되어 있다. ② 이차로 공작화된 배수로로 수리배수에 매우 잘 향응하여 물이 배수로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③ 트레이 육묘장 모습에 맞춰서 사다 ④ 우리꽃이 한다 (대형)로 일정한배치면 더욱 효과적이다 (3치 및 4치)



⑤ 트레이(사다) 1개를 3구 2구, ⑥ 트레이(사다) 3구를 3구 2구

아름다운 봄의 향연 - 매발톱류



매발톱은 미나리아재비과의 다년초로 봄부터 초여름까지 개화한다. 우리나라 자생종으로는 매발톱, 노랑매발톱, 하늘매발톱이 있으며 세계적으로 많은 품종이 선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꽃이 화려하고 잎 또한 줄이 정원, 공원, 골프장, 도로화단 등 사람이 많이 찾는 곳에 식재하면 좋고 분화제배로도 매우 좋은 품종이다.

현재 우리나라 조경에서는 매발톱과 하늘매발톱이 주로 사용되어 왔지만 '우리꽃'에서는 이 외에도 매년 다양한 화형과 화색을 자랑하는 새로운 품종을 선보이고 있다.

하늘매발톱(보라, 흰색)

하늘매발톱은 꽃이 보라색과 흰색의 두 종류가 있다. 보라색의 아담한 꽃은 어느곳에 식재해도 봄을 화려하게 수 놓는다. 초창

이 30cm정도로 키가 작으며 잎은 하얀가루가 묻은 듯 윤곽이 있어 꽃이 지고 난 뒤 잎차례만으로 뛰어난 관상가치가 있다. 흰색의 하늘매발톱은 깔끔한 느낌을 주며 보라색 꽃과 잘 어울리게 식재하면 좋은 경관을 연출할 수 있다. 키가 작고 잎 또한 좋다. 여름이 지나면서 잎이 지지분해 될때 잎의 밑부분을 바짝 잘라두면 새순이 바로 나와 아름다운잎을 계속 감상할 수 있다.

캐나다매발톱

이른봄 빨간색의 많은 꽃무리를 피어내는 캐나다매발톱은 빨간색의 강렬함과 작고 앙증맞은 꽃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정원, 도로화단 등에 식재하면 좋고 다른 식물과 어울려 포인트 식물로 심어도 좋다. 또한 이른봄 분화용으로도 최상의 소재로 추천할 만하다.

메카니매발톱

매우 아담하고 화려한 꽃을 지닌 품종으로 다른 품종과 달리 꽃이 위로 향해 피어 있다. 꽃모양 자체로 이국적인 느낌을 자아내며 화색 또한 다양하여 보라, 노랑, 자주색 등이 잘 어울려 고급스런 경관을 연출한다. 골프장, 공원, 전원주택 등에 식재하면 최상의 봄을 연출할 수 있다.

이외에도 화형과 화색이 다양하여 대면적에 활용하면 좋은 서양매발톱, 혼합종과 왜성종으로 각각 분홍, 보라, 흰색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3종류의 커파매발톱 등 '우리꽃'의 다양한 매발톱 품종들은 그 아름다움을 수놓기 위해 봄의 향연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봄을 최소한으로 한정하는 대신 나머지 품목은 규격을 재조정함으로써 자연도 보호하고 식재현장에서도 효과적인 연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4기타 품이나, 육묘판, 매트, 큰 화분 등 자체규격의 다양화를 추구하자.

최근 전 세계적으로 양산지의 통규격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들은 특정 식물에 한정되어서 적용 가능한 것이 단점이다.

육묘판 등을 활용한 매트와 개발은 조정 효과를 달성 하기 위한 것으로 포복성의 연나식물인 종홍바퀴, 리시마리아, 아주가 등에 적합하다. 또 육상용 세팅, 그리고 실내 조경에 필요한 종류나 이기류 등으로 확대 적용해도 효과적이다.

큰 화분 혹은 종이 양벽한 식물에 관해서는 새로운 규격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이런 류의 식물규격과 자재는 이미 초기에 완성된 공간 등에 추가할 경우 필요한 규격이기 때문이다. 즉 전 원주벽의 조정이나 작은 화단을 조성할 공간 등에는 식재와 함께 공간 조정이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에 적합한 규격과 자재가 필요한 것이다.

아무튼 우리의 조정 현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지금의 규격으로는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또 재배능가 역시 고역이다. 불법 산채 식물이 유통될 수 있는 빌미까지 제공되고 있다. 식재 후 하자를 유발하거나 혹은 관리비의 상승, 효과의 반감 등이 분별하므로 이의 이른 공문화와 재정질을 통해 성공적인 조경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1면 기사 계속

오호러 물거름 심은 후 몸살이 적고 뿌리의 활착이 좋으며, 운반비와 식재비가 일반 포트에 비해 20%정도면 가능하다. 따라서 이른 트래이 규격 또는 대면적이나 도구가 혹은 2-3개월 후 꽃이 피도록 설계된 지역이면 매우 경제적인 장점을 갖추고 있다. 또 포트 자체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은 식재의 밀집까지 완료할 수 있어 식재 후 관리비도 기존 방식보다 80% 까지 절감할 수 있다.

2) 3치, 4치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규정한 3-4치의 구분은 서두에서도 말했듯 무의미하다. 용기의 크기가 식물의 크기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 설계자는 반드시 식물의 규격을 표시해 줄



기름 용기(플라스틱)를 이용한 조경. 일종의 비닐 용기(플라스틱)를 이용하여 규격을 다양화하여 현장에 맞게 연출이 가능하게 했다.

반행인 가능

창조적 계승과 도전으로 친환경 과제 풀어야

매년 되풀이하는 말입니다만 올해는 유난히 더 시달렸습니다. 말이 적었지만 해인 듯 합니다. 밖으로는 미국 주도의 세계재판과 이에 반발하는 국가간 종교간 갈등이 증폭되었고, 전세계적인 불황까지 겹쳤습니다. 안으로는 참여정부의 새로운 시도와 전통, 이해집단간의 갈등, 그리고 경기침체 등 보통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겐 사업환경이 매우 어려웠던 해이기도 합니다. 요즘했으면 IMF시절보다 더 힘들다는 소리까지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징후이라는 것이 세계 학자들의 공통된 해석입니다. 또 후천시대의 개막이라고 하는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를 가르쳐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패러다임 스위치 시대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패러다임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경제원리, 가치관, 상식 등 우리 사회와 기업환경을 이루는 기본 골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혁명적으로 변한다는 예측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같은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오

고 있을까요? 경제학자들은 '전세계적인 과잉'과 '불황의 불균형'으로 분석합니다. 이를 마치 1920년대의 세계적인 대공황을 아끼했던 것과 유사한 위급요인으로 지적합니다. 전정이라는 극악을 처방치 않고서는 이같은 '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비생산적인 대량소비체가 없다는 것이며, 순환되지 않고 한쪽으로만 쏠리는 불균형 역시 경제구조가 고도화될수록 더욱 심해진다고 지적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들의 경고뿐만 아니라 이들이 주장하는 새로운 처방들이 더욱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인류사에 없었던 참신한 처방을 매우 근거있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행의 소비수준에 걸맞는 규모는 현재 환경복원 또는 친환경 개발 등 환경에 대한 투자, 유망분야에 대한 분석입니다. 사실 도로 확장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활발한 투자는 어느 시장에서부터 불균형과 과잉생산을 유발한다는 게 경제학의 정설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환경에 대한 투자를 강조한 이들의 해법에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친환경이라는 새로운 과제와 전세계적으로 제시된 생기기도 합니다. 그들의 처방처럼 유망

무한한 대안이 아닐지라도 최소한 매우 중요한 처방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경쟁력있는 고지를 선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과 삶의 토대, 그리고 자연과의 일체감을 강조했던 역사의 궤적이 이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국내 생태적 조건 역시 20년 이상 앞서 시작된 선진국에 비해 절대 뒤처지는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생태조경인들도 타분보다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보아야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리하다고 늘 여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창조적 계승과 창의적인 도전으로 미래적인 신모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답습과 발전하지 않은 곧 뒷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어려움이 실은 밝은 미래를 예상하는 것이라면 더 이상 어렵지 않은 것을 것입니다.

발췌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모두가 감동과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간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이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유망품목 재배 관리

화려함의 진수, 나만의 화색 연출 - 독일붓꽃



많은 붓꽃 품종중에서 꽃이 크고 화려하기로는 독일붓꽃 품종을 건줄만한 붓꽃은 없다. 꽃이 크고 화려하여 관상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잎 자체로도 매우 좋다. 따라서 우리나라인 경우 장마가 지난 다음 식재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북부지방인 경우 9월말까지 식재를 마쳐 겨울을들며 피어야 한다. 식재방법은 주두가 위로

이론적으로 일년종 어느시기나 가능하나 이듬해 만류면상태일 때 식재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우리나라인 경우 장마가 지난 다음 식재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북부지방인 경우 9월말까지 식재를 마쳐 겨울을들며 피어야 한다. 식재방법은 주두가 위로

매우 화려하면서 다양한 독일 붓꽃



갔다. 잎은 두껍고 단단하여 한 자루의 겹과 같다.

독일붓꽃은 매년 두 번의 생장주기를 가진다. 따뜻한 봄이 오면 근경대에 축적된 양분을 이용해 잎을 신속하게 키우는 동시에 뿌리도 내려 개화에 필요한 영양분을 흡수한다. 이에 따라 봄은 근경은 천천히 죽어간다. 봄 잎이 지르고 꽃이 필 때는 생장이 지상부에만 집중되지만 화기가 지난 후에는 지하경의 생장이 시작된다. 꽃이 진 후 6-8주 사이에 근경이 양분을 신속하게 축적하여 다음에 생장준비를 한다. 이때 새로운 화아분화와 새근경의 뿌리생성도 동시에 시작된다. 무더운 여름에는 생장을 멈추어 방류면 상태로 들어가고 이른 가을에 2차생장에 들어간다.

식재시 식재지의 선택이 중요한데 독일붓꽃은 건조지 식물이기에 단순한 환경을 피하고 땀배지는 좋은 태양을 선택해야 한다. 식재시기에는 이론적으로 일년종 어느시기나 가능하나 이듬해 만류면상태일 때 식재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우리나라인 경우 장마가 지난 다음 식재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북부지방인 경우 9월말까지 식재를 마쳐 겨울을들며 피어야 한다. 식재방법은 주두가 위로

조금 낮아게 1-2cm 정도 묻어준다.

병충해로는 근경생육병과 잎만병이 발생하는데 주로 여름 장마철 고온 다습할 때 생긴다. 따라서 장마가 오기 전부터 3-4차례 나누어 살균제로 관주해 주는 것이 좋다. 출애에는 고지리파리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일년에 1-2번 정도 토양살충제로 살포해 주는 것이 좋다.



특집 I

사진으로보는 우리꽃

‘2003’

숨가쁘게 달려온 올 한해의 우리꽃 주요 하이라이트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신품종 육성기반 완비

전문화된 육묘기술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화려함을 겸비한 신품종 대량 출시



우리넷신문 창간

조경용 지피식물을 중심으로 조경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담아 월간 발행



조직 확대 개편

식재팀과 구매팀, 신규사업팀 신설



연구·생산기지 확충

13,000평의 이천농장확충, 대면적의 우리꽃 연구·생산기지조성



우리법면1,2,3,4호 돌풍, 시장점유율 1위

골프장, 도로변, 하천부지 등 각종 현장에서 씨드스프레이용 상품으로서 탁월한 효과 입증



중국농장, 안정된 생산시스템 구축

다품 다양하고 전문화된 종자생산, 연 300여종, 20톤의 종자 생산



우수기업상수상/(스포츠서울, 해럴드경제 선정)

야생화 및 지피식물 업계의 선두주자로 발돋움

화훼업계 선두기업 '우리꽃'



기능성과 경관미학에 적합하고 다양하게 구비된

야생화종자

국내 최대 100여종 보유



생명력이 강한 전천후 야생화!
큰톱풀



도로, 둔지, 벌면 등의 Seed Spray 용!
개미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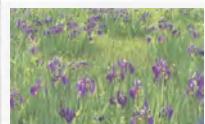
스키장, 둔지, 시기가 늦은 지역의 빠르고 아름다운 초성!
붉은메밀



한국정서에 가장 알맞은 꽃!
구절초



지피력이 빠른 황금색 여름꽃!
금불초



일과 꽃이 매우 좋은 수변식물
꽃창포



지피력과 꽃이 뛰어난
꿀풀



재배 쉽고 효과 빠른
도라지꽃(혼합종)



가을풍경의 대표적 식물!
마타리



생명력, 지피력, 화기 모두 OK!
민들레



한국의 대표적 야생화
벌개미취



일과 꽃이 모두 좋고 생장이 빠른
범부채



생명력 강하고 꽃이 좋은
부처꽃



꽃과 잎이 매우 좋은 봄꽃
붓꽃



속성 지피식물, 다양한 연출 가능!
산국



대면적의 화려한 SEED SPRAY 용!
쑥부쟁이



당년 개화, 야생화 SEED SPRAY의 새 강자!
야생과꽃



환경적응성과 지피력이 강한
질경이



끈질긴 생명력, 아름다운 꽃!
증꽃



건조, 척박지에서 아름다운 가을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대표종!
패랭이

재배 쉽고 경제적인

초화종자

새롭고 다양한 70여종 보유



메리골드



백일홍



봉선화



사루비아



채송화



마사, 사질토양의 황재!
딱지꽃



양지, 음지, 건조, 습지 모두 OK!
평의다리



암석지, 건조지의 화려한 주인공!
큰평의비름

지피식물의 새로운 발견

우리꽃 우수 품종 시리즈

조경 현장의 다양한 표현



음지의 빠른 지피, 화려한 일과 꽃!
무늬엔젤리카



생육이 강하고 아름다운 대형!
벌앵초



키가 작은 최상의 아름다움
속근왜성천인국



봄부터 가을까지 -
스텔라원추리



조밀한 잎의 애기송악
제주줄송악



최근 인기를 더해가는
개랑연꽃



전혀 새로운 개념의 신소재
발레리안



상록의 황금색무늬
상록황금무늬사초



재배가 쉬운 향기식물
속근꽃향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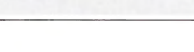
봄부터 가을까지 황금물결
속근황호코스모스



한국적 아름다움의 표준
왜성제비고갈



화려한 구근식물의 재도약
크로코스미아 '루키'



하늘이 내린 최상의 지피식물
하늘초롱꽃



화색이 다양하고 아름다운
개랑작약



최고의 용벽, 착배용 소재!
눈붉은필레



시원하고 아름다운 여름의 귀공자
리아트리스



꽃이 크고 아름다운 붉은색 장미형!
붉은꽃백무



천상의 아름다움!
속근겹백비(겹속근 꽃양귀비)



음지에서 밝은 새로운 식물
웨엘리아



범부채의 새로운 개념
유색범부채



이국적인 아름다운
디기탈리스



화려함의 결정판
매발톱 '메카나'



가을에 수국 보셨나요
수국 '만주'



건조에도 강한 상록의 락가동용 봄식물
아우브리에타



양말같은 화려한 지피식물
양구슬갯배이



여름에도 무늬 생생
옥잠 '골든티아라'



대형 포인트 식물
흰줄무늬억새



우량의 향토종 복원
흰복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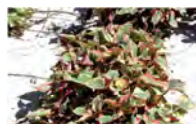
화색이 다양한 최고의 수중식물
개랑수련



5월초부터 10월까지 개화하는
분홍꽃달맞이



건조에도 강한 화려한 동자
비단동자



봄부터 가을까지 피는 잔디 같은 패랭이
잔디패랭이



상록의 귀족 수변식물
물사초 '골드밴드'



화려한 대형 무늬중
칸나 '황금'



나비들의 황홀한 전치
가우라



다양한 칼라의 화려한 초화
리나리아



여름구근의 대표식물
다알리아 '에리조나 시리즈'



새로운 개념의 비단같은 멀동자
털비단동자



화려한 대형 무늬중
칸나 '황금'



나비들의 황홀한 전치
가우라



다양한 칼라의 화려한 초화
리나리아



여름구근의 대표식물
다알리아 '에리조나 시리즈'



새로운 개념의 비단같은 멀동자
털비단동자



화려한 대형 무늬중
칸나 '황금'



나비들의 황홀한 전치
가우라



다양한 칼라의 화려한 초화
리나리아



여름구근의 대표식물
다알리아 '에리조나 시리즈'



새로운 개념의 비단같은 멀동자
털비단동자



5월초부터 10월까지 개화하는
분홍꽃달맞이



건조에도 강한 화려한 동자
비단동자



봄부터 가을까지 피는 잔디 같은 패랭이
잔디패랭이



상록의 귀족 수변식물
물사초 '골드밴드'



화려한 대형 무늬중
칸나 '황금'



화려한 대형 무늬중
칸나 '황금'



나비들의 황홀한 전치
가우라



다양한 칼라의 화려한 초화
리나리아



여름구근의 대표식물
다알리아 '에리조나 시리즈'



새로운 개념의 비단같은 멀동자
털비단동자



5월초부터 10월까지 개화하는
분홍꽃달맞이



건조에도 강한 화려한 동자
비단동자



봄부터 가을까지 피는 잔디 같은 패랭이
잔디패랭이



상록의 귀족 수변식물
물사초 '골드밴드'



화려한 대형 무늬중
칸나 '황금'

아름다운 법면을 연출해내는

우리법면 혼합종 시리즈

봄부터 가을까지 연속개화

우리법면3호에 도입 야생화로 화려함을 보강한
우리법면4호기능성은 물론 아름다운 관상성으로
익새지피 및 사방, 절개지의 새 갈자
수크령내한성이 강하고 조밀한 지피효과
샤스타데이지대표적 도입복화용 관화식물
루드베키아작고 귀여운 색동 꽃송이
춘차국수변, 생태공원, 법면 등에 OK!
개쉬망발아력 좋은 우발종
해송꽃이 큰 도로가의 아름다운 색채시
부용한국계 대표 수종
적송수변, 생태공원, 법면 등에 OK!
개쉬망인기있는 조경수
자귀나무내한성이 강한 아름다운 꽃
해당화인기있는 조경수
자귀나무꽃이 큰 도로가의 아름다운 색채시
부용

넓은면적의 사방이나 법면에 적합한

향토, 사방종자

싸리, 비수리 등 30여종 보유

우리법면3호에 도입 야생화로 화려함을 보강한
우리법면4호기능성은 물론 아름다운 관상성으로
익새지피 및 사방, 절개지의 새 갈자
수크령내한성이 강하고 조밀한 지피효과
샤스타데이지대표적 도입복화용 관화식물
루드베키아작고 귀여운 색동 꽃송이
춘차국수변, 생태공원, 법면 등에 OK!
개쉬망발아력 좋은 우발종
해송꽃이 큰 도로가의 아름다운 색채시
부용한국계 대표 수종
적송인기있는 조경수
자귀나무내한성이 강한 아름다운 꽃
해당화인기있는 조경수
자귀나무꽃이 큰 도로가의 아름다운 색채시
부용

대면적의 빠르고 화려한 조경에 알맞은

도입 야생화종자

국내 최대 금계국, 루드베키아 등 50여종 보유

꽃대가 많고 화려한
금계국아름다운 꽃송이
수레국화인기있는 조경수
자귀나무내한성이 강한 아름다운 꽃
해당화인기있는 조경수
자귀나무꽃이 큰 도로가의 아름다운 색채시
부용

우리꽃 2003년 히트 품종

잔디패랭이 2년전 처음으로 선보인 후 봄부터 가을까지 화려하게 연속개화하는 장점을 바탕으로 인기를 더해가는 품목으로 올 한해에도 약 20여개의 공로장에 출품이 됐고 대학교 및 아파트 조경에도 점차 그 이용이 늘어가고 있다.



스텔라원추리 봄부터 가을까지 연속개화하며 맑고 밝고 앙증맞은 노란색의 꽃무리는 어떤 현장에 적용해도 좋아 연출 인기를 끄는 품목이다.



발앵초 기존 분홍색꽃의 앵초와는 달리 다양한 화색의 꽃을 연출하는 발앵초는 올 봄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봄부터 내내 봄 히트 품목으로 예상되고 있다.



에키나 분홍색의 루드베키아인 에키나는 기존의 루드베키아와는 전혀 다른 이국적인 아름다움으로 단성을 찾아내며 새롭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개량후룩스 우리꽃이 선보인 12품종의 개량후룩스는 다양한 조경연출을 가능하게 하여 공로장, 주민, 식물원 등에 출품되어 올 한 해 그 화려함을 선보였다.



왕상록패랭이 일반적으로 조경에 많이 이용된 상록패랭이의 단점을 극복한 왕상록패랭이는 올봄 그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 하였으며 내년에는 새로운 왕상록패랭이 시리즈로 여민분을 찾아갈 것이다.



세덤류 우리의 자생종 뿐만 아니라 외국의 좋은 세덤류를 수집한 세덤류는 선보인 30여종의 세덤류는 건조지피 및 옥상 조경을 소재로서 각각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모습을 연출한다.



우리법면3,4호 우리법면 혼합종시리즈는 올봄도 앙산천, 함수산 등 화정부터 각종 공로장 그리고 고속도로법면, 아파트 내 유흥법면 등 다양한곳에 사용되어 좋은 효과를 나타내며 점점 더 씨드스프레이를 최고의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눈붉은절레 국내 팅컬패랭이 계열의 품목으로 자라미 아주 빠르고 꽃이 화려하여 올봄 및 입시년 눈꽃의 새로운 대안으로 인식되며 올봄 열거기 품종이 되어 내년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



개량꽃잔디 일반 꽃잔디보다 꽃이 크고 화색이(신종)선명하여 일 또한 절건이 좋고 강건하여 기존 꽃잔디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한 품종이란 평가를 받았다.



속근코스모스 4월부터 11월까지 연속개화하며 우리법면 서에도 맞는 품목으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많은 문의와 관심을 찾아내며 내년에도 많은 출하가 예상되는 품목이다.



매발톱류 대표적인 분홍색의 하나인 매발톱은 봄에 주로 많은 출품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품종을 선보이며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봄을 한껏 즐겁게 해주고 있다.



“네덜란드 화훼시장 엿보기”

네덜란드
탐방기

네덜란드 화훼산업의 중심지인 가든센터



네덜란드 화훼산업의 중심지인 가든센터



가든센터의 꽃시장



가든센터의 꽃시장



가든센터의 꽃시장



가든센터의 꽃시장



가든센터의 꽃시장



가든센터의 꽃시장



가든센터의 꽃시장



가든센터의 꽃시장

탐방기 (이태현)

세계화훼시장의 코드를 읽기 위해 우리는 지난 여름 네덜란드 화훼시장을 1차로 조사한데 이어 11월 4일부터 일주일간 2차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항공료를 40% 절감하기 위해 일본을 경유하는 JAL을 이용하기로 했다. (나라다 호텔에서의 1박 1식이 포함된 패키지 티켓이다.) 그런데 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절차 때문에 필자는 여행수 없이 조사일정에 출발한 다음날이여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일행만 믿고 있다가 준비미흡이 홀로 비행시간만 17시간이 소요되는 1박2일의 여정에 나선 것이다.

가든센터의 천국, 네덜란드

도착 다음날 세계적 농업박람회(식물,재배용품,농기계)박람회인 NTV쇼를 둘러보며 자료를 수집하고, 이튿날 아침에는 알스미어꽃시장을 방문했다. (현지에서 다음 회회에 이를 소개할 계획이다) 이날부터 우리 일행은 당초 계획대로 화훼의 최종 소매 단계인 가든센터를 조사하기 위해 서둘렀다.

첫 번째 방문, 조사처는 리체에 위치한 마커(BA)이다. 전국 채인망중의 하나라는 이곳은 약 6천여종의 품종을 자랑하고 있다. 약 3만평은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전시,판매장이고, 나머지지는 인근 가맹점의 물류기지로 사용하고 있었다. 3천여평의 마당은 실내 전시판매장과 옥외전시판매장으로 나뉘져 있으며 옥외마당에는 조경,원예자재가 70%, 실내마당에는 자재와 식물이 각각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마당엔 전시 및 쇼핑 도구는 국내처럼 대형 할인매장과 비슷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식물과 자재, 레저용품 등 1만여종

이곳의 전체 상품 종류는 총 1만여종 이상인 듯했다. 각종 분화, 묘목, 절화, 초화 외에 특이한 것은 조경 구조물과 설치물이 많다는 점이며, 기계 및 기구도 다양하다. 특히 레저용 상품과 연휴용 물품의 사료가 취급하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마당 농업용 기계를 없었지만 가정용레저용 중추용 기구류는 매우 다양했다. 관수자재와 건물마감에 설치하는 외통의 종류도 매우 많았다. 원화아트라는 일명행태의 기업은 중앙 화자상품과 풍나무집을 취급하고 있다. 서재가품 상품과 올리바 담을 쌓는 데 필요한 건축자재에도 상당히 많다.

비수기에 대한 대규모 크리스마스 이벤트

우리 일행은 이곳의 구조와 상품들을 카메라에 담

고 가격을 조사했다. 알스미어꽃시장에서 정략된 후 도매상들이 다시 소매상으로 공급하는 가격의 3~5배 수준에 판매하는 듯 했다. 관리비와 제초술, 그리고 종양소방의 판매 등을 고려한 마진체제로 보여졌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가격수준에 불만이 없는 듯했다. 방문고객수는 크리스마스와 기획전에 진행되고 있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품비는 수준이었다.

특이한 점은 우리의 경우와 달리 일반 할인점에서 어엿하게 원예상품을 취급하는 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할인점은 네이비후드(neighborhood)형인 300~500평 규모의 SSM(super supermarket)매장이 많고 각각 식품 또는 패션 등의 특성별로 전문화되어 있는 양상이다.) 국내 꽃집과 유사한 점포도 존재하지만 특이한 꽃자판기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또 도심에서 주말 아침에 반박 문을 열고 꽃을 파는 ‘칼거리 반박 화원’은 국내에서도 시도해볼만 벤치마킹 사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접국에도 가든센터는 성업중

우리가 찾아간 벨기에의 가든센터는 4천여평의 규모이고, 전시공간과 고객을 위한 서비스 면적을 상당히 많이 제공하고 있었다. 옥외마당의 면적이 70%로 앞서 본 곳보다 많았다. 옥외마당은 역시 가운치설은 없는 지비용 구조로 만들어져 있었으며, 겨울철에는 별도의 활동안이 없는 듯 했다. 상품가격은 네덜란드보다 10% 이상 높았고, 식물들의 종류는 약간 차이가 있었으나 전체 상품군은 엇비슷했다.

이들 가든센터는 전체 상품군에 대해 대개 직영하지만 상품군별로는 임점형태도 운영되고 있다. 가든센터는 대개의 상품에 대해 대리점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다. 국내에 00천호, 000테러티 등 소매를 대리점인 단체 아이템으로 전개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들의 운영효율성과 비용절감, 고

객들의 등 유통시스템의 장점이 부러웠다.

수출상당과 와인상당

우리 일행은 시장조사라는 당초 목적과 함께 수출가능성을 타진한다는 의도가 있었다. 물론 현재 시장탐색 이상의 기대가 전혀 없지는 않았다. 준비한 샘플을 들고 당당히하게 현지 유통업체를 방문했다. 현지 방문조사 4일째의 일이었다.

이미 그들은 중국산 수입상품을 이용해 수입가격의 5~10배의 마진을 챙기고 있었다. 비록 우리 손을 거친 상품이 중국산보다 2배 높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적절한 판매이익을 실현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를 반기지 않았다. 아니 우리의 기를 꺾어려 했다는 것이 정확한 논점일 것이다. 아직까지는 중국과 아시아의 수입, 유통물량이 미미하지만 향후 적절한 시장으로 확대될 것이 유력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의 경쟁자를 원치 않았던 것이다.

조사, 상담일정이 끝나는 날 우리는 간단한 현지 평가회를 통해 짧은 소감을 정리하고, 또 후반기 대를 짚었다. 또 농담삼아 네덜란드의 조상은 해리갈 뽀리라는 악담(?)과 와인상당의 고사를 함께 해가 했다.

한국형 가든센터와 영종도 아시아꽃시장을 꿈꾸며

귀국길에 필자는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유류 가격 미국 화훼시장의 맹주자리를 탐하면서 왜 번번히 네덜란드에게 무릎을 꿇을까?’ 왜 세계의 화훼가 네덜란드에 모였다고 할까? 후 네덜란드의 화훼유통전문가의 가든센터를 통해 창출된 고액의 수 준들은 수요가 열려 있는 아닐까? 아시아의 알스미어꽃시장은 인천 영종도에서 재현될까? 중국의 상용 반도에서 재현될까?

돌아보면
우리農

회사정보

회사명 : 우리꽃

본사 : 경기도 용인시 통진로 114

연구소 : 경기도 이천시 모란면

송곡리696

전화번호 : 031634-7990

팩스번호 : 031634-7991

농협 : 235109-51-053689

183-12-304270

(예금주:박광영)

자발적 구독요금에 대한 이해

매년 발간하는 우리꽃은 조경 및 야생화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폭발적인 반응에 대한 보답과 2009년 가을이 되는 소식지 발행과 후원비를 위해 고려했습니다. 이제 고료를 받아놓았습니다.

*자발적 구독요금*으로 여러분의 함께 하셨습니다.

자발적 구독요금은?
지정된 계좌에 금액에 상관없이 구독/후원을 하시면
계좌 : 235100-56-071562
예금주 : 박광영 (우리꽃 대표 사외 이사 발행인)

우리꽃 찾아오시는 길

